

한국칸트학회 2023년 춘계 학술대회

칸트와 하이데거

일시: 2023년 4월 1일(토), 14:00~18:40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한국칸트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국칸트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의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주최, 한국칸트학회 주관 하에 '칸트와 하이데거'이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에서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거리두기 국면을 지나 대면 행사를 통해 얼굴을 직접 마주보며 발표와 토론을 듣고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각 발표의 초록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 김한라

부회장 : 이진오, 이원봉

편집이사 : 강지영

연구이사 : 김형주

총무이사 : 오창환(010-2226-1405)

학술교류이사 : 백승환

편집간사 : 정선아(010-2361-2919)

총무간사 : 신창화(010-3834-7382)

회비계좌 : 우체국 501072-02-293482 오창환

한국칸트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ntgesellschaft.co.kr>

한국칸트학회(편집부 & 총무부) 이메일 : kantsarag@naver.com

<한국칸트학회 연회비 안내>

전임: 5만원 / 비전임: 2만원

한국칸트학회는 다른 외부 지원금 없이 학회 회원 선생님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로 학회 운영에 힘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칸트학회 2023년 춘계 학술대회

칸트와 하이데거

- 일시/장소: 2023년 4월 1일(토)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 주최: 서강대학교 철학과 • 주관: 한국칸트학회

	시 간	대회 내용	사 회
1부	14:00-14:10	개회사 - 김한라 (서강대학교)	오창환 (전남대)
2부	[제1발표] 14:10-15:10	하이데거는 칸트 초월철학의 유산을 넘어섰는가? ◆ 발표 : 김혜영 (파리고등사범학교ENS) ◆ 논평 : 이재훈 (창원대학교)	강지영 (서울시립대)
	[제2발표] 15:10-16:10	칸트와 하이데거에서 자유 개념 ◆ 발표 : 하피터 (경희대학교) ◆ 논평 : 한상연 (가천대학교)	
	16:10-16:25	휴 식	
	[제3발표] 16:25-17:25	칸트와 하이데거의 존재신론 비판 ◆ 발표 : 윤동민 (서강대학교) ◆ 논평 : 강지하 (루빙대학교)	백승환 (강릉원주대)
	17:25-17:35	휴 식	
3부	17:35-18:35	종합 토론 및 연구윤리 교육	백승환 (강릉원주대)
4부	18:35-18:40	폐회사 - 김한라 (서강대학교)	오창환 (전남대)

* 각 발표 당 발표시간은 45분, 논평시간은 15분 내외로 배정되었습니다.

한국칸트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초록

[제1발표]

하이데거는 칸트 초월철학의 유산을 넘어섰는가?

김혜영 (파리고등사범대학)

철학사에서 하이데거는 자주 칸트를 오해하고 오해하게 만든 철학자로 논의된다.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 하나는 하이데거가 칸트의 초월철학을 존재론, 형이상학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이 비판은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당하며, 칸트와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자주 이 비판이 다루지 않는 문제들 중 하나는 시간의 문제이다. 이 논문은 하이데거의 칸트 비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대로 시간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관련된 점으로, 이 두 철학자가 자연과학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시간과 공간을 감각 경험을 받아들이는 선험적인 틀이라고 설명한다. 칸트에게 시간은 주관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원천, 순수한 틀이다. 하이데거는 시간을 존재론적으로 다루며 시간을 변하지 않는 틀로 분석하지 않는다. 자연과학은 철학을 포함한 학문의 전통 안에 있다. 칸트의 초월철학이 묻는 근본적인 질문 역시 주관에 의해 인식되는 자연과학의 지식이 어떻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희랍철학에서 시작되는 서양철학의 전통 안에서 인식의 객관성은 존재에서 시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보장되었다. 나는 하이데거가 자신의 기초존재론을 통해 넘어서고자 했던 칸트와 칸트가 서 있는 철학의 전통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하이데거가 칸트의 유산을 넘어섰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루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2발표]

하이데거와 칸트에서 자유개념

하피터 (경희대)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의 본질은 자유에 놓여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현존재의 자유는 도덕 철학의 관점이 아니라 형이상학의 관점에 입각해 논의된다는 사실이다. 1930년 여름 학기에 하이데거는 ‘인간 자유의 본질’에 대해 강의했는데, 이 강

의에서 그는 형이상학은 현존재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에서 우리는 전통존재론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형이상학적 사유를 구축하고자 하는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의 고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통 존재론과는 달리 하이데거의 존재사유는 현존재의 자유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하이데거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자유에 입각해 형이상학을 정초하고자 시도한 철학자가 아니다.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에 따르면 형이상학의 정초에 방향잡혀 있는 칸트 철학에서도 자유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사실상 하이데거와 칸트 모두 철학의 근본원리를 자유로 삼았으며, 이 원리에 기초해서 인간의 근원적 본질인 자유가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칸트와 하이데거의 자유개념 사이에는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비록 칸트는 인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 이론적 이성보다는 자유를 강조했다. 그의 자유 개념은 불명확하게 남아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하이데거와 칸트에서 핵심개념으로 간주되는 ‘인격’, ‘의지’, 그리고 ‘성격’을 비교 검토한 다음 현존재의 자유가 어떻게 칸트의 예지적 성격에 기초해 있는 자유와 차별화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제3발표]

칸트와 하이데거의 존재신론 비판

윤동민 (서강대)

마르틴 하이데거는 칸트를 위시한 서구 형이상학의 전체의 역사를 진단하면서 존재와 신을 기초로 존재자를 사유하려는 오래된 습관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 방식에서 탈출할 때야 비로소 신과 종교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참답게 사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이데거가 존재신론적 사유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꼽은 칸트 또한 동일한 이름의 비판을 수행한다. 그는 안셀무스로부터 시작되어 데카르트와 볼프에 이르기까지 서구 형이상학이 오랫동안 발전시킨 존재론적 논증의 방식으로는 신을 포함한 종교적인 경험을 제대로 사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적인 사유를 감행하였다.

본 논고는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와 칸트의 존재신론 비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들이 각기 수행하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하이데거의 비판적인 시선에서 칸트의 존재신론 극복을 살펴보면서 칸트가 어떤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비판에 걸려드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이 맥락에서 나는 카푸토의 약한 신학 개념을 활용하여 칸트 철학의 탈-존재론적 면모를 드러낼 것이며, 이를 통해 칸트와 하이데거의 존재신론 비판이 공명하는 지점을 보여줄 것이다.